

제9강 문장력 강화 II

(1교시)

▲ 시적 표현을 활용하라.

가. 운문정신과 산문정신

운문정신	산문정신
· 리듬과 같은 음악성	· 사건과 같은 운동성
· 사물의 본질, 순간의 순간(찰나)에 주목	· 사물의 내력, 내력의 의미를 추적하는 전체적인 조망, 총체성에 주목
· 운문정신과 산문정신이 반드시 분량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며 서로 무관하지도 않음.	

나. 주제 형상화

예문1)

자린고비들이다, 지독하다, 처마 끝에 생선을 매달아 놓고 허구헌날 나물밥만 먹겠다니.

쫓덩이 생선 앞에서 애써 식욕을 돋우고 참는, 지긋이 참아보는 절간.

(손택수 「풍경」 전문)

해설)

절간 주녀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색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의문스럽고도 절묘한 시선이 돋보인다.

예문2)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전문)

해설)

흔하디흔하던 ‘깨진 연탄’에 대하여 기존 작가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준 시.

예문3)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는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김남주 「사랑1」 전문)

해설)

‘사랑’이라는, 흔한 소재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 시.

예문4)

빨에 말뚝을 박으려면
긴 정치망 말이나 김 말도

짧은 새우 그물 말이나 큰 말 잡아 줄 썩게말도
말뚝을 잡고 손으로 또는 발로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힘으로 내리 박는 것이 아니라
흔들다보면 빨이 물러지고 물기에 젖어
빨이 말뚝을 품어 제 몸으로 빨아들일 때까지
좌우로 또는 앞뒤로 열심히 흔들어야 한다
빨이 말뚝을 빨아들여 점점 빨리 깊이 빨아주어
정말 외설스럽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흔들어주어야 한다

수평이 수직을 세워

그물 넝쿨을 걸고
물고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상상을 하며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들며 지그시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함민복 「빨에 말뚝을 박는 법」 전문)

해설)

빨에 말뚝을 박는 모습을 형상화하며, 앞의 시들에 비해 좀 더 확장된 소재를 다룬 시.

예문5)

세상 어디는 그렇지 않은가. 모든 사물의 틈새에는 그것을 부술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네. 지금은 이런

모습이 이곳 타프롬 사원에만 남아있지만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밀림에서 뻗어나온 나무들이 앙코르의 모든 사원을 뒤덮고 있었지.

그때까지 나무는 두 가지 일을 했다네. 하나는 뿌리로 불상과 사원을 부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그 뿌리로 사원과 불상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버텨주는 일이라네. 그렇게 나무와 부처가 얹혀 9백년을 견뎠다네. 여기 돌은 부서지기 쉬운 사암이어서 이 나무들이 아니었다면 벌써 흩어 버렸을 지도 모르는 일, 사람살이가 다 그렇지 않은가.

(김영하 「당신의 나무」에서)

해설)

- 주제를 형상화하는 수법이 시와 유사.
- 운문정신과 산문정신은 형태가 다를 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소설과 시는 밀접한 관계.

- 소설문장을 잘 쓰고자 하는 사람이 배울 것 → 주제를 형상화하는 능력
- 시와 소설은 표현 양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주제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중간 과제

예문으로 제시한 시들을 마지막 소설 예문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고쳐 써 보자.

* 분량 : 원고지 2매 정도

다. 배경 형상화

예문1)

가을 바닷가에

누가 써놓고 간 말

썰물진 모래밭에 한줄로 쓴 말

글자가 모두 대문짝만씩해서

하늘에서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

정순아보고자피죽꼈다씨필

씨필 근처에 도장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하늘더러 읽어달라고 이렇게 크게 썼는가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손등에 얼음 조각을 녹이며 견디던

시리디시린 통증이 문득 몸에 감긴다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가을 바다

저만치서 무식한 밀물이 번득이며 온다

바다는 춥고 토막말이 몸에 저리다

얼음 조각처럼 사라질 토막말을

저녁놀이 진저리치며 새겨 읽는다

(정양 「토막말」 전문)

해설)

- 소설이 시에 비해 약한 것 : 시각적인 측면
- 즉, 시는 낭송의 문학이면서 또한 시각적인 문학.
- 2열의 독립된 1행 : 시각적 효과. 띄어쓰기를 무시한 강렬한 낱말들의 조합이 시의 무게 중심을 차지.
- 시선의 이동 : 시선이 닿는 곳의 풍경이 달라짐.
- 1연 : 강렬한 인상을 줌. 모든 풍경들과 구절들이 1연에 닿아 있음.
소설문장을 쓸 때 우리가 배경을 묘사하는 순서와 다르지 않으며, 배경묘사를 통해 의도하는 것과 같은 의도라 할 수 있음.

예문2)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꺾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빛 얘기
약장수 기타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쉴다라도 별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싯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달이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

(신경림 「罷場」 전문)

해설)

- 장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풍경을 하나하나 떼어서 묘사
- 서정적 배경 : 배경을 통해 어떤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 소설 역시, 배경묘사 만으로 어떤 의미를 암시할 수 있고 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문장이 시적이냐, 소설적이냐의 차이일 뿐, 의도하고자 하는 것 일치함.

★ 중간 과제

이 시들을 문장으로 고쳐 써보자.
대신, 이 시들을 마치 소설로 옮기는 식이 아닌,
이 시들에 사용된 어휘를 최대한 이용하여 다른 상황을 그려보자.

라. 인물에 서사 부여하기

예1)

머슴놈과 눈맞아 덜컥 눈맞아
천별 받아야지
아홉 살 꼴머슴 때부터
머슴질로 뼈 굵은

씨머슴과 눈맞아
 캄캄밤중 그믐밤 도망쳐온 아씨
 그 어느 날 뜻밖에도 머슴과 말탄 꿈 꾀 다음날
 백년 묵은 팽나무 밑에서
 팽나무 이파리 사이
 햇빛 어지러이 빛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아씨더러
 두엄 지고 논에 나가다 쉬는 머슴
 불쑥 말 한마디
 아씨께서는 수박등 같으셔요 환하셔요 하던
 그 난데없는 말 한마디 들은
 그 머슴과 눈맞아
 천리길 도망쳐 온 아씨
 역마살 오라버니 화승총 사냥길 따라간 머슴
 오라버니보다도 더 사냥질 뛰어난 머슴
 선불 맞은 멧돼지에 죽을 뻔한 오라버니
 그 죽음에서 살려낸 머슴
 그 머슴과 도망친 아씨

(고은 『백두산』에서)

예2)

두루 그 어미를 부르는 호칭이 여꿀댁이었다. 그이는 원래 이 골짜기 사람이 아니라 산 너머 여우골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부르기 좋게 여꿀댁이 된 듯하였다. 여우골은 화전 부치던 사람들도 깊다고 하는 그런 외진 데였다. 그 여편네 복이 없어서 갓난애 하나 둔 새댁 나이에 서방을 병마로 잃었다. 스물넷이나 나이 많은 무바우골 농부가 쟁기질 같은 거친 일을 해주고 소실로 거두었다. 화전민들이 하나들 산밖으로 나왔을 때 소실댁도 영감을 따라 이 마을로 왔다. 그때부터는 본처와 한지붕 아래에서 지냈다. 영감 살아 있을 때는 두 여편네가 서로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영감 보내고 난 뒤에는 자매간 처럼 서로 위하며 지냈다. 본처마저 혈압으로 쓰러지자 그 병시중을 다 해주었는데 누운 지 다섯 해 만에 본처가 돌아가자 영감 곁자리를 내주었다.

(전성태 「존재의 숲」에서)

해설)

- 서사시에서 인물의 과거를 부여하는 방식 : 시가 운율적이라면, 소설이 좀 더 설명적.
- 소설을 쓰다보면 인물의 과거를 요약 정리하듯 제시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인물의 과거 가운데 반드시 독자에게 알려주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 글의 흐름상 이처럼 호흡이 긴 문장으로 인물을 제시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
- 시 : 인물에 과거를 부여할 때,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술어를 줄이거나하는 방식 사용, 제시하는 방식이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음. 단, 핵심만을 생생하게 제시함.

※ 소설을 쓸 때 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제시하는 시적인 표현들에 유념하면, 좀 더 매끄럽고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2교시)

《소설의 산문정신이 운문정신에 기우는 데 대하여》

시가 내밀한 독백의 문학갈래였다면, 소설은 세계를 향해 외치는 선언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소설도 내밀한 독백을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시가 주로 시인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은 1인칭 중심이었던 탓이며, 소설에서 화자와 작가가 철저히 분리되었던 건 3인칭 중심이었던 탓이다.

그러나 현대시에서는 시인이 지워진, 시적화자의 시선이 사물적인 시도 많고, 현대소설에서는 자기고백적인 화자가 많이 등장한다.

만일, 소설이 산문정신을 잃게 된다면 그때 소설의 존재의의는 무엇일까. 소설문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정통소설이 아닌 이른바 장르문학이라 구분되는 판타지, 무협, SF와 같은 소설들은 그 서사성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그 탓에 이런 문학들은 본격문학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걸 본격문학의 살아남기 위한 치졸한 전략일 수도 있다. 서사성으로 어찌 해 볼 수 없으니, 대체 너희들은 묘사가 뭔지 알아?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판지를 거는 건 아닐까 싶다.

다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 중간 과제

예시된 시를 예시된 소설과 같은 방식으로 고쳐 써 보자.

마. 시적 심상 빌려 쓰기

※ 시적 심상 : 언어를 통해 표현된 구체적 형상, 그와 관련된 추상적인 관념들.

- 연상되는 감각적 인상 → 감각적 이미지

- 연상되는 추상적 관념 → 상징적 이미지

: 감각적 심상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ㄱ. 시각적 심상 - 모양, 색채, 명암, 움직임

·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김광균 「외인촌」에서)

· 비는 하이얀 진주 목걸이를 사랑한다. (장만영 「비」에서)

ㄴ. 청각적 심상 - 소리, 음성, 음향

-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김소월 「접동새」에서)
- 머리맡에 찬물을 쇠아 퍼붓고는 (김동환 「북청 물장수」에서)

ㄷ. 후각적 · 미각적 심상 - 냄새, 향기

- 강한 향기로 흐르는 커피 (서정주 「대낮」에서)
- 물새알은 간간하고 짹조름한 미역 냄새 (김소월 「물새알 산새알」에서)

ㄹ. 촉각적 심상 - 피부, 근육, 몸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김종길 「성탄제」에서)

ㅁ. 공감각적 심상 - 감각의 전이

-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김광균 「외인촌」에서)
-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김광균 「외인촌」에서)
- 자옥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김광균 「추일서정」에서)
-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서정주 「문둥이」에서)
-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환 「깃발」에서)

해설)

- 시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감각들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 좋은 소설을 쓰려면 시를 많이 읽어볼 것. 특히, 현대시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

예문1)

절친한 점쟁이가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 문지방에다 붙여주었다
 장밋빛 손가락은 체온도 활기도 없는 내 소지품들 속에 섞여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친구가 찾아와 그 손가락을 가리켜 이르길
 더러운 샘은 왜 파놓았느냐
 그러나 내 더운 피를 다 빨아먹고 생긴 더러운 샘이니
 지진 같은 평음의 푸른 줄기 하나는 보아야지

(박관식 「밤의 피치카토」 전문)

예문2)

불어져 가는 하늘을 엮고 전기줄이 무거워진다. 구슬피 우는 사람들 곁으로 나방들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붉고 아름다운 꽃떨기 위에 혀끝을 대고 곤충은 인간의 울음을 맛보고 싶다. 담벽에 여자 성기를 그렸다고 한길까지 몽둥이를 들고 엄마가 어린 나를 쫓아왔다. 기억 밖에서 나무가 숨쉬고 나뭇잎이 세상보다 넓어졌다. 태양이 이렇게 가루져 내리는 날에 정말로 기억은 아프지 않은가.

(조연호 「오월」 에서)

바. 시를 분류하라.

예문1)

거미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인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언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이 오르길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
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히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백석 「거미」 전문)

예문2)

내가 으스스리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스한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 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렸다.

(김수영 「거미」 전문)

예문3)

이 그리움은 전방위이다
이 거미줄에 닿지 말아라
거미보다 외롭다
그대는 공기의 한견 무관심처럼 내다건
이 기다림 보지 못한다 그대는
언젠가 지나가리라
감감한 다짐 한가닥
바람에 걸어놓고 눈물도 아껴
거미줄 만드는
이 푸른 도화선의 순간들
거미처럼 기다려 왔다
이 외로움에는 닿지 말아라
그대 기쁨의 처마에서 툭

떨어지면서 그날부터 파랗게 고여
거미줄 만들었거늘, 이제
소리쳐 부르지 않으리라

(이문재 「거미여인의 춤」 전문)

예문4)

거미가 허공을 짚고 내려온다
걸으면 걷는 대로 길이 된다
허나 헛발질 다음에야 길을 열어주는
공중의 길, 아슬아슬하게 늘려간다

한 사내가 가느다란 줄을 타고 내려간 뒤
그 사내는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 올라와야 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내는
거미줄에 걸린 끼니처럼 옥탑 밑에 떠 있었다
곤충의 마지막 날갯짓이 그물에 걸려 멈춰 있듯
사내의 맨 나중 생이 공중에 늘어져 있었다

그 사내의 눈은 양조장 사택을 겨누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당겨질 기세였다
유서의 첫 문장을 차지했던 주인공은
사흘만에 유령거미같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조장 뜰에 남편을 묻겠다던 그 사내의 아내는
일주일의 넘어서야 장례를 치렀고
어디론가 더났다 하는데 소문만 무성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들은
그 사내의 집을 거미집이라 불렀다

거미는 스스로 제 목에 줄을 감지 않는다

(박성우 「거미」 전문)

해설)

- 시 분류법(내용 또는 주제별로) : 시적 표현을 사용해 소설 문장 연습을 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한 훈련. 창작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공부의 과정.

▲ 구어체를 활용하자.

예문1)

지금은 혼자 살아요. 화분 가꾸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요새 노처녀들 사이에 유행하는 웰빙 라이프
잖아요. 하하, 물론 저야 처녀랄 것도 없겠지만. 아니, 처녀가 맞나. 뭘 그렇게 이상하게 봐요. 별거 아
니예요. 남자랑 살았으니 처녀가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처녀가 아닐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흉도 아니하면서요. 호적에 붙은 줄만 없으면 남부끄러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고
하던걸요. 게다가 나는 따로 식을 올린 것도 아니예요. 물론 드레스는 입었죠. 꽃 같은 드레스 입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 한 판 찍은 게 내 결혼식이예요.

(한지혜 「사루비아」 에서)

해설)

- ‘-다’로 끝나는 문장의 답답함을 벗어나, ‘-요, -나, -죠’와 같은 다양한 끝맺음 가능.
- 다채로운 문장의 맛을 느낄 수 있음.
- 구어체를 익히는 방법
 - ① 문법을 무시한 채 말하는 대로 옮겨 적기 → 쓴 후, 소리 내어 읽어보기 → 어색한 부분 자연스럽게 고치기 → 소설 문장에 반영
 - ② 사람들의 대화를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기 → 반복하면 목소리만으로도 사람 구별이 가능해짐 → 인물마다 저마다의 언어습관이 있음을 알게 됨 → 소설 문장에 반영

▲ 사투리를 활용하자

예문1) 사투리로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경우

미역국은 고사하고 콩나물 대가리도 없는 처지가 대농게 어린 거슬 안고 가마니떼기의 안저 몸덜 풀장게 억쟁이 무너지더라. 아랫목이 자글자글 끓도록 뜨신 방의 누엇쓰른 그럭코름 서럽진 안홀 터인디. 저그쟈를 나코 사홀 동안을 꼼짝읍써 누엇따가 이려다 굴머죽능가 시퍼서 그냥 들쳐업꼬 비력질을 나섯따. 아무리 날리통이라고 혀도 명절이라 그렇가 밥그릇을 내밀면 매물차게 내치는 사렘들이 벨라 읍써 천행이었따.

(정도상 「부용산」에서)

▷ 표준어로 바꿔 보면

→ 미역국은 고사하고 콩나물 대가리도 없는 처지가 되어 놓으니 어린것을 안고 가마니 위에 앉아 몸을 풀자니 억장이 무너지더라. 아랫목이 자글자글 끓도록 뜨거운 방에 누웠으면 그토록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 재를 넣고 사홀 동안을 꼼짝없이 누웠다가 이려다 굶어 죽는가 싶어서 그냥 들쳐업고 비력질을 나섯다. 아무리 난리통이라고 해도 명절이라 그런가 밥그릇을 내밀면 매물차게 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천행이었다.

예문2) 대화에서만 사투리를 활용하는 경우

그제야 정실은 걸레를 놓고 느릿느릿 문지방을 넘어 내 방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말도 안 된다. 내는 다 꾸게진 거 바닥에서 뭇 장 주워다 버린 거배끼 없다. 중요한 거는 손 한낫도 안 댔다.」

「지금 몰 잘했다고 바락바락 텀비 쑤노? 니까짓 게 모가 중요한지 어떻게 아는데? 책상 위에 있는 거는 모든지 손도 대지 말라고 안 했나?」

「책상 위에 있는 거는 손 안 댔다 안 하드나? 내는 바닥에 굴러 있는 것만…….」

「치아라! 바닥에 있건 책상에 있건 손도 대지 말라 이 말이다. 니 앞으로 내 방에 들락거리모 직이 뻔 줄 알아라!」

(심윤경 『달의 제단』에서)

▷ 표준어로 바꿔 보면

→ 그제야 정실은 걸레를 놓고 느릿느릿 문지방을 넘어 내 방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말도 안 된다. 나는 다 구겨진 걸 바닥에서 뭇 장 주워 버린 것밖에 없다. 중요한 건 손 하나도 안 댔다.」

「지금 뭘 잘했다고 바락바락 텀비냐? 니까짓 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아냐? 책상 위에 있

는 건 뭐든지 손도 대지 말라고 했잖아?」

「책상 위에 있는 건 손 안 댔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바닥에 굴러 있는 것만…….」

「치워라! 바닥에 있건 책상에 있건 손도 대지 말라고 했잖아. 너 앞으로 내 방에 들락거리면 죽여버릴 줄 알아라!」

- 사투리가 소설 전반에 활용될 때와, 대화에서만 활용될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재미있는 사투리

- 석양의 무법자 - 해거름참의 꺾렁패
- 아니, 벌써 ! - 워따,시방 금시!
- 태양은 가득히 - 땡벌은 항거석...
- 호수 위의 백조 - 뚝뚝 우에 때까우
-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땡기기 웅작스라서 우짖다요...
- 이유없는 반항 - 뭇 땡에, 지랄허고 나자빠졌나?
- 언덕위에 하얀 집 - 까꾸방에 때까우 집
- 너 따라 하다가 큰일 났다 - 니 땡기로 허다가 작살나부렀다.
- 걸레 가지고 방 닦아라 - 두디기 가꼬 방 훑치라.
- 오줌 누라 - 소피 싹빠라.

▲ 비어, 속어, 은어를 활용하자

- 일종의 사회방언을 활용함으로써 생생한 느낌을 주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음.
- 소설문장은 인간의 삶을 반영. 저속한 삶도 있게 마련이므로 적절한 비어, 속어, 은어의 구사도 필요.
- 『상말속담사전』 참고할 것.

※ 비어, 속어, 은어의 예

- 건수올리다 - 여자 사귀다
- 골 때리다 - 황당하다
- 구라 - 거짓말
- 꼰대 - 선생, 아버지
- 껌사리 - 참견
- 깔 - 여자 애인
- 껌냐? - 불만 있냐?
- 고딩 - 고등학생
- 날나리 - 잘 노는 사람
- 날밤까다 - 밤새다
- 노가다 - 막노동
- 당근이지 - 당연하다.
- 뺑 뜯다 - 돈을 뺏는 행위
- 생까다 - 외면하다.

- 야려보다 - 노려보다
- 얼큰이 - 얼굴 큰 아이
- 졸라 - 엄청. 굉장히
- 째새 - 경찰
- 곰 - 형사
- 쪼개다 - 웃다

예문)

보도방도 웃겨, 가끔 TV에 나오지. 불량 청소년들이 보도방 차리고 영계 사업 한다고, 신문도 보도, TV도 보도, 라디오도 보도, 웃겨 웃겨, 정말 웃겨, 웃겨서 미치겠어, 니네들 보도방이 무슨 뜻인 줄이나 알아, 신문 보도, 뉴스 보도, 사건 보도, 라디오 보도, 그런 보도인 줄 알아, 보도는 말이야, 보도는 말이야, 우리가 퍼뜨린 말, 보지 도매의 줄인 말, 그거 알아, 보지 도매, 보지 도매, 줄여서 보도, 니네들 방송에서 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신문에서 상소리는 ××로 하잖아, 한테, 줄이면 괜찮아, 좇나게 공부만 한 기자 새끼도 보도, 좇나리 이쁜 척하는 앵커도 보도, 줄이면 괜찮아, 줄이면 괜찮아, 말하면 괜찮고, 쓰면은 안 된다, 우리를 욕하면서, 우리 말 따라 쓰는, 바구니 같은 새끼들, 좇나게 품 잡고 있지만, 내 품이나 네 품이나, 엮어치나 메치나, 바구니나 빠구리나,

(이기호 「버니」에서)

해설)

비속어를 남발하고 있으나, 비속어·은어 사용의 조장은 커녕 그런 현실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음